잔류파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증언*

김미향(인천대)

〈목 차〉

1. 들어가며
2.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세 가지 선택
3. 잔류파의 갈등과 민중의 기회주의
4. 한국전쟁기 잔류파의 문학적 증언과 그 의미

1. 들어가며

한국전쟁 시 한국문단은 '도강파'와 '잔류파'로 분류되고, 잔류파는 숨어 지내던 '잠적파'와 부역을 했던 '부역자'로 또 다시 나뉜다. 물론 부역자들도 그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게 된다.[1] 당시 도강과 잔류에 대한 구체적 상황과 현실인식은 도강파와 잔류파 문인들의 글과 작품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처음 도강파는 국민을 버리고 또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 '피란(避亂)간 자'에 불과했으나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남은 사람들의 피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38887)

1) 조연현의 「6·25 동란과 문예전시판」(『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현대문학사, 1968, 88~92면.)을 보면 문인들의 경우 "괴뢰치하에서 문학가동맹에 잠시라도 나간 모든 문인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A급은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움직인 표적이 있는 사람으로 무조건 기소, B급은 일단 구류, C급은 훈계 석방"으로 처리하고 있다.

www.kci.go.kr

이 원천 봉쇄되면서 그들은 투철한 반공의 '영웅'이 되어 서울에 입성하였다. 반면, 잘못된 방송과 보도 그리고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따랐던 일반 '시민'들은 '부역의 역도'가 되어 도강파의 서울 입성을 공포 속에 지켜보게 된다. 다만 운이 좋아서, 또는 권력이나 돈이 있어서 가능했던 '도강'을 이념과 양심의 판단 근거로 삼은 잔류파 심판은 그 후, 민족분열과 혼란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의 문단은 상황을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시, 소설, 수필 등의 '창작물'보다는 도강파의 우월의식과, 잠적파의 이중성 그리고 부역자의 죄의식 등 작가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자기 고백적 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2] 그런데 체험기, 수난기, 피란기, 종군기 등의 '증언물'은 그 표현의 직접성 그리고 논픽션(non-fiction)이라는 장르상의 특성으로 작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게 될 때, 책임을 져야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언물'에서는 잔류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부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진실이나 이를 밝히려는 노력, 잘함과 못함을 따지는 판단력보다는 속죄의 몸짓이 더 필요했다. 공산당의 지배 하에서 90일을 보낸 이들은 자신들이 잔류는 했지만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을, 부역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공산군의 강요였음을 끊임없이 입증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3]

그러므로 이 시기 문학 연구 또한 '창작물'보다는 '증언물'에 의존하게 된다.[4]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식적 전쟁 해석을 뒷받침하는 회고록, 증언물, 역

---

2) 자기 고백적 글쓰기의 대표적 텍스트는 뒤늦게 도강하거나 은신했던 문인들의 『고난의 90일』(수도문화사, 1950.11)과 부역을 했던 문인들의 『적화삼삭 구인집』(국제보도연맹, 1951.3) 등이다.

3)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 사학자의 6·25일기'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창비, 2009.)이다. 그가 남긴 이 '증언물'은 일기라는 사적 기록의 형식을 빌린 일종의 역사서로 시대상과 진실을 역사학자로서 저자가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4) 이 시기 '증언물'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병순의 「한국전쟁기 여성문인들의 반공서사연구-모윤숙과 최정희를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41, 2010)에서는 잔류파 중 '은신'했던 모윤숙과 '부역'했던 최정희가 발표한 수난기를 논의하고 있다. 모윤숙이 체험의 직접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고난의 참상을 생생하게 알리는데 치중했다면 최정희는 고난에 처한 자신의 심리적 상황과 속죄의 의식을 병행하고 있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는데, 잔류파

www.kci.go.kr

사서는 오직 국군의 승리와 인민군의 만행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 잔류한 시민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작가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작품 곳곳에 남긴 문학적 흔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도강파의 피란 체험 영웅화와 더불어 잔류파의 부역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우월적 태도에서의 글쓰기 또는 잔류파의 일관된 변명과 고해성사가 아닌, 당시의 문학작품을 통해 잔류파의 선택과 현실인식을 논의하는 것은 '피란'만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었던 당시 현실이 놓치거나 은폐해 놓은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5]

정부의 잘못된 유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란 중 사망하거나 시기를 놓쳐 잔류 후 부역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6]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피란의 과정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정부 또한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와 사과도 없었다. 그러므로 잔류파의 침묵과 묵종(默從)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취한 최선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들의 진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세계, 진실

라 하더라도 부역을 하지 않고 은신해 있을 경우 이념의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서동수는 증언물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전쟁기 반공텍스트와 고백의 정치학」(『한국현대문학연구』20, 2006)에서는 한국전쟁기 간행된 반공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부역문인들의 고해성사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1950년대 이후 남한 문단의 보수화 과정의 내면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또한 「모윤숙의 피난 체험과 도강파의 글쓰기」(『한국문예비평연구』33, 2010)에서는 각 시기별로 혹은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자신의 피난 기억을 새롭게 배치하고 조직하여 자신을 투철한 반공주의자로 그리고 있는 모윤숙의 글쓰기가 적군에게 잡히기 보다는 깨끗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자살의 정치적 글쓰기'화되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진오의 글쓰기와 피난의 윤리성」(『우리말글』52, 2011)에서는 그는 대한민국헌법기초자인 자신이 피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술하는데 이것은 당시 남한의 문인들이 작성한 반공 텍스트는 반공 담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의 공간이었음을 밝혀내고 있다.

5) 김동춘, 『한국전쟁』, 돌베개, 2009, 119면.

6) 한홍구,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 한홍구 교수 역사와 책임", 한겨레 신문, 2014.5.25.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는 9·28 서울 수복에서 1·4 후퇴 사이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1950년 1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 사형이 선고된 부역자가 867명이고 이중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일보> 1950년 11월 27일치에는 11월 24일에 322명의 공산당 협력자에 대한 형 집행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1950년 12월 11일 주한미국대사관의 '한국 정부의 부역자 처리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11월 8일까지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된 1만 7721명 중 민간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353명, 계엄군법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713명,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된 사람은 232명이었다."

www.kci.go.kr

이 아닌 허구의 세계, ‘증언물’이 아닌 ‘창작물’의 세계로 숨어 버리게 된다. 특히 ‘창작물’ 중 소설 속에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책임과 정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증언물’과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학적 증언’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아무렇지 않은 듯 교묘하게,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창작물’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생각이나 대화,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결과를 통해 ‘증언물’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누락되었던 잔류파의 목소리를 문학적 증언을 통해 귀 기울이고 정리하여 그 의미를 규명한다면 새로운 문학사적 계보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세 가지 선택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 이틀 후인 6월 27일 신문에는 우리 군의 승전보가 실렸다. 또한 대한민국 공보처에서는 중앙청 집무를 발표하고 국회는 서울 사수를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전쟁 시작 사흘 만에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었고 낮에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남아 있는 서울시민들은 자연스레 잔류파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6월 25일에서 28일까지 사흘은 서울 시민의 도강과 잔류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은 물론 전쟁에서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다.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세 가지 선택’에서 논의하는 작품의 공통점은 주인공들이 모두 전문직에 종사했던 지식인들로 비교적 당시의 일반 시민들보다 전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잔류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최인욱의 <목숨>의 주인공 조병기는 한강로 K 병원의 원장이자 육군중위의 아버지, 최태응의 <구각을 떨치고>의 주인공은 작가 그리고 곽학송의 <철로>의 주인공 현수는 철도국 수색 조차장에 근무하는 통신요원으로 이들은 잔류 이후 각각 자살, 뒤늦은 도강과 두 번의 피란 그리고 부역을 선택하게 된다.[7]

7) 한국전쟁 당시의 피란은 1950년 6·25 직후의 1차 피란과 다음 해 1·4후퇴 이후의 2차 피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한 번의 경험을 통해 2차 피란에서의 서울 탈출은 필사적으로

www.kci.go.kr

2.1. 양심과 자존심에 고뇌하는 지식인의 자살

최인욱의 <목숨>은 전쟁 시작 후 사흘 동안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한강로 K 병원의 원장 조병기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째 되던 날 밤, 조병기원장의 둘째 아들인 육군중위 창기는 서울에서 후퇴하는 길에 트럭 한 대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찾아와 그의 가족에게 피란을 권한다. 하지만 조병기원장은 군부의 공용차를 사사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잔류를 결정한 후 트럭을 돌려보낸다. 개인의 피란에 군부의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양심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관료나 정치가 지식인들은 그와 같이 자신을 지켜보는 힘없는 시민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가족과 살림살이를 챙겨 피난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이 조병기원장이 잔류하게 된 첫 번째 원인으로 아들인 창기가 떠난 뒤 바로, 그는 가족만이라도 피란을 시켜야 했음을 깨닫는다. 반면에 이것은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들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정보와 권력 또는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도강에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자동차를 타세요. 괜히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창기는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아버지는 백번을 고쳐 생각해도 창기가 가지고 온 자동차를 타고 피란길을 떠날 마음은 나지 않았다. 지금 조국의 운명이 최후의 일전에 달린 이 엄숙한 시각에 군부의 공용차를 일개인의 사용에 돌려 가족과 살림을 들어내다니, 생명도 귀하고 재산도 중하지마는 한 계단 초월해서 잠시 내들인 발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냉정히 생각해야 할 일이었다.(최인욱, <목숨>, 202면.)

조병기원장은 창기가 떠난 뒤 곧 자신의 판단이 오류였음을 깨닫고 가족들을 큰아들이 있는 대전으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서울에 잔류하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조병기원장이 잔류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이다. 그는 가족들을 피란 보낸 후 바로 그들을 따라가지만 한강다리가 폭파되고 도강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신의 판단이 오류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Ⅱ장에서의 피란은 6·25 직후의 1차 피란을 말한다.

www.kci.go.kr

그런데 그가 가족을 보내고도 마지막까지 잔류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집과 병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가 전쟁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는 라디오 뉴스를 통해 나오는 정부의 발표만을 의심 없이 믿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당시 서울 시민의 일반적 모습으로 이미 공산주의를 경험한 이북의 피란민들을 제외한 보통의 서울 시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일종의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집들을 지키고 있었다.[8] 그들이 전쟁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피란을 결심했을 때는 이미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인민군이 밀려오고 난 후였다.

> "나만은 뒤에 남아서 좀 더 형편을 볼라오. 생명도 생명이지만 내 손으로 이룩한 이 병원과 살림을 그대로 팽개치고 훌쩍 떠나자니 차마 마음이 내키질 않구려. 끝까지 지키는 대로 지키다가 정 안되면 나도 뒤 따라 갈 테니깐 내 걱정은 조금도 말고 어서들 먼저 떠나오."(위의 책, 203면.)

한강을 건너지 못해 피란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조병기원장은 서울이 이미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음을 알게 된다. 좌익 운동을 한 아들을 둔 어물도가 홍씨의 군인과 정부 비하 발언에 그가 분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한 반공주의자인 그는 적의 손에 치욕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이것은 대다수 정부의 발표를 믿어왔던 서울시민들이 정부의 철수와 한강다리의 폭파를 목격하고 겪었을 정신적 공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병기원장 역시 자신의 판단 오류에 대한 굴욕감과 정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전쟁의 공포감에 의해 자살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와 같은 처지의 일반 시민들은 공포와 굴욕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만 했다. 당시 조병기원장과 같이 잔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 보다는 부역이나 잠적을 택하거나 뒤늦게 피란을 떠났기 때문이다.

<목숨>은 '지식인으로서 양심'과 '의사로서의 직분'을 지키려했던 주인공이 잔류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오류를 자각하고 자살하기까지 사흘간의 기록이다. 그가 잔류한 원인은 소박하게도 양심과 직분을 지키며 정부의 발표를 믿었기 때문으로 그의 잔류에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양심과 자존심에 고뇌

8) 유진오, <구름위의 만상>, 일조각, 1992, 29면.

www.kci.go.kr

하는 지식인의 갈등만이 드러날 뿐이다.

2.2. 죄책감에 머뭇거리는 월남 작가의 피란

최태응의 <구각을 떨치고>에서도 전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인공이 뒤 늦게 피란의 대열에 합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가족과 국군의 도움으로 겨우 도강에 성공하여 수원에 도착하게 된다. 수원에 도착한 후, 그는 그 동안의 행실을 뉘우치기라도 하듯이 열심히 종군 임무를 수행하는데 '삐라와 격문을 쓰고, 제작하는 과정'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는 도강에 성공하였음에도 전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흘만 견디어 내면 서울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남쪽으로 향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망설임은 전쟁에 대한 낙관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을 적지인 서울에 버려두고 가장인 자신만이 피란을 왔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머뭇거림'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이기도 하며, 동시에 잔류파에 대한 도강파의 죄책감이기도 하다.

> 시름시름 거러만 가도 목표만 남쪽으로 정하고 마냥 거르면 안전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던 나도 금방 벗어난 지옥 같은 서울을 고대로 그려볼 줄 알면서도 일보 남쪽으로만 혼자서 안전지대를 향하여 바쁘게 달려 갈 마음이 없었다. 그렇다 혼자서만 열흘이고 한달이고 무기한으로 서울과의 거리를 오백리고 칠백리고 또한 무제한으로 멀리 떠러져 갈수가 없었다.
> - 한 사흘만 견디어 보자 -
>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대개 나의 예상과 다름이 없는듯 그 당초에는 모다 가차운 시골에서 며칠씩만 기다리면 서울은 다시 회복되고 적은 물러가고 마는 것으로 치고 있었다.(최태응, <구각을 떨치고>, 186~187면.)

> 떠난지 달포만에 깡통을 차고 진짜 거지가 되어 나는 무사히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집은 허무러 젔으나 대부분이 노인과 어린것들인 나의 가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견디어 주었다.
> 두말 할 것 없이 그들을 데리고 사흘만에 두 번째 서울서 벗어나 두달동안 나와 나의 가족들은 소위 백날에 걸친 '붉은 난리'를 이겨 내었다.(위의 책,

www.kci.go.kr

202~203면.)

월남자나 대한민국의 지배층, 우익들의 '다급한 피란'에는 잔류와 피란을 선택하는 망설임, 즉 고민의 과정이 생략 되었다.[9]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 시작 후 사흘 만에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 작품에는 잔류와 피란을 선택하기까지의 갈등이 주인공의 '머뭇거림'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이 고민의 시간이 전쟁 당시 생사를 규정하는 도강의 절대적 시간이 되었는데, 일반 시민뿐 아니라 남북한 양 정권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 지식인이나 중간층의 경우 피란과 잔류 사이에 고민하게 되면서 도강의 시기를 놓치고 대부분 서울에 잔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뒤 늦은 도강에 성공했음에도 잔류한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 중의 서울로 다시 돌아와 가족들을 데리고 두 번째 피란을 떠나는,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작가인 최태응은 월남인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검증받기 위해 과잉된 충성과 헌신으로 이승만 우상화에 열을 올리며 자신의 주체위치를 증명하던 대표적인 친 체제, 반공 인사였다.[10] 그러므로 그의 작품에서 비록 가족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잔류한 자에 대한 도강한 자의 죄책감이 구현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의 뒤 늦은 도강과 피란 그리고 결국은 서울로 다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피란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형상화된 <구각을 떨치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인공의 '머뭇거림'의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강한 사람들의 적이 아님은 물론 모두 그들의 가족이고 이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강파의 죄책감은 국군의 서울 입성과 함께 잔류파에 대한 증오로 변하게 된다. 그들의 희생을 외면해야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잔류파를 증오하고, 빨갱이로 처벌하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11] 그러

9) 김동춘, 앞의 책, 162면.

10) 공임순, 「빨치산과 월남인 사이, '이승만'의 재현/대표성의 결여와 초과의 기표들」, 『상허학보』27, 2009, 375면. 참조

11) 잔류파를 향한 증오가 드러나는 가장 원색적 비난으로 조영암의 「잔류한 부역문학인에게-보도연맹의 재판을 경고한다」(『문예』, 1950.12. 74~75면.)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월남 작가로서 이념적 콤플렉스가 반공으로 치환된 대표적 경우이다. "너희는 90일 동안의 충견 노

www.kci.go.kr

므로 도강파의 자기증명은 잔류파 처벌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도강파의 도덕적 부채감이 잔류파를 상대로 이념적 순결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2.3.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개인주의자의 부역

곽학송의 <철로>는 철도국 수색 조차장에서 근무하는 통신요원 현수가 피난을 포기하고 서울 잔류를 결정하면서부터 서울이 다시 회복하기까지 삼 개월 간의 부역과 그 후의 부역자 처벌 과정을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대부분 이 시기 작품들이 분한(分限)의 감정이나 추상적 휴머니즘, 경직된 이데올로기 등에 머무른 반면 <철로>는 드물게 전쟁을 구체화하며 부역과 취조, 고문 등 당시 상황과 그에 대한 주인공의 생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인 현수가 피란을 포기하고 서울 잔류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이념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 그의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으로 그는 지극히 관념적인 개인주의자이다. 잔류를 결정한 후, 그는 지금껏 자기가 하던 일을 하기 위해 직장에도 계속해서 나간다. 그와 그의 일 사이에는 어떠한 사상도, 권력도, 정치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소극적이고 서툰 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통신 약어 사전' 집필에 몰두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는 편집증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전쟁 등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잔류와 출근을 결정한다. 현수는 자신의 궤도만을 달리는 기차와 같다. 그에게 철로통신선은 삶이자 생명이므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이고 반동이다. 현수는 잔류를 결정한 후에는 갈등하지 않고, 묵묵히 부역을 하면서 자신의 일터를 지켜나갔다. 그는

릇……굶주린 이리떼……악마의 화신……백의를 걸친 레-닌 스탈린의 후예! 너희는 깍두기를 먹는 스라브의 자손들이다.……너희들의 갈 길은 이제 하나 밖에 없다. 참회와 속죄의 기록을 남기라. 거룩한 여류작가, 갈보군상님들은 수녀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불연이면 탑골승방으로 돌아가도 무방하고, 성스런 남류작가 시인군상님들은 따라 가서 함께 동서하시어도 무방무방하실 것이고……또 불연이면 한강철교로나 청산가리로나, 점잖게 자진하야 만고에 남을 누명을 청산해봄직도 하지만, 워낙이 우부우부들이라 그렇게 할 수 없을 터이니, 차라리, 또 우리에게 기류와 같은 추파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들은 너희의 허무하고 가엾은 인생을 가상하여 훈1동 공2등 국화대수장을 주는데 인색치 않으리라."

www.kci.go.kr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 부역이기에 앞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정치적 판단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수는 기수의 유격대 가입도 강의 공산당 입당의 권유도 끝까지 거절하며 일체의 정치적 행동을 거부한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중립의 표현은 '중도파적 인물'의 탄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는 의의[12]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남과 북 양측에 모두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는 자살 행위로 그 자신에게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 지금 이 시간까지 이십여년간 지켜 온 서울 문산 간의 철도통신선은 벌써 그의 생명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그가 여기를 떠나서 하루 세 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재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보다 더 그는 여기를 떠난 자기의 생활을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는 '이것'의 사살상의 주인이다. 어떤 권력이 개입하여도 그를 '이것'과 떼어 놓을 수는 없다.(곽학송, <철로>, 339면.)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수는 자신의 부역행위에 대해 다른 부역자처럼 고해성사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당위성(當爲性)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실제 아무 것도 바뀐 것 없이 표면적 반성만으로 용서받기도 하고 도강파에게 반성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당시의 부역자 처벌을 비판한다. 생사가 오고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고민하는 등 인간의 좀 더 근본적인 존재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현수는 다소 어눌하고 비현실적이지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부역한 자들의 잔류가 '당국'의 명령이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도 그들을 구제하지도, 그들을 위해 변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면하려는 '당국'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역자에 대한 고문과 폭력은 부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역을 취조하는 자들의 부당성마저 보여준다. 전쟁에서의 잔혹함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권력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잔혹한 잔류파 처벌은 전쟁 이후 권력 장악과 유지

12) 정희모, 「역사체험의 회복과 실감 있는 전쟁의 엿보기」, 『민족문학사연구』8, 1995, 275면.

www.kci.go.kr

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 오늘까지 석 달 동안 나는 죄를 범했단 말인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하자. 거기까지 양보하여 죄를 범했다 하고 그런 나의 죄가 이제 짧은 시간의 행동으로 부정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될 성싶은가. 도대체 나는 오늘까지의 나의 생활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석 달 동안의 나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은 그 석 달 동안의 생활을 있게 한 그 전의 나의 생활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위의 책, 377면.)

> "나는 자네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네. 자네의 태도쯤은 나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국에서 직장 사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던들 자네나 나나 모두 부산에 피난했으리라는 것을……"(위의 책, 432면.)

> 잠시 후 현수는 무지막지하게 생긴 두 사내에게 끌려 고문실에 갔다. 그리하여 온갖 방법에 의한 육체적인 타격을 받았다. 야구용 배트같은 곤봉과 고압선 토막들이 번갈아 육체에 몇 번 부딪쳤을 때 이미 현수는 맑은 의식이 아니었다. 구둣발로 무수히 챈 무릎, 그리고 뒷 전등을 때리는 고압선 토막이 두부(頭部)에 휘감겨 얼굴이 깨지고 하여서도 현수는 별반 아픔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위의 책, 448~449면.)

<철로>에서 주인공 현수가 전쟁의 두려움과 고독함 그리고 잔류 후의 고문과 폭력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그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의 다양한 선택, 국가가 벌인 전쟁이 내세우는 정체성과는 '다른 종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13] 정부의 의도나 권력자의 의지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생각과 행동은 적을 이롭게 하는 반역행위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 의지와 선한 의도가 모두 정치적 판단과 이데올로기로 치환되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13) 현수의 '다른 종류의 정체성', 즉 '대안적 정체성'이 비교적 잘 드러난 이 작품은 "개인의 특성이 없다면 진정한 문학도, 입 밖에 내어 소중히 간직할 가치가 있는 말도, 보호하고 독려할 만한 인간의 역사나 행위능력도 없을 것"(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 마티, 2012. 113면.)이라는 관점 하에서 그 뛰어난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가치중립적 이데올로기를 지양하는 한 양심적 지식인의 자유 의지와 선택은 개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불행이 되었다. 부역은 양심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 더 나아가 정치적 문제이기에 수많은 양심을 지키려했던 자들이 죽어갔던 전쟁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결국 양심과 타협하고 정치적 선택을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목숨>의 조병기원장은 정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인의 양심을 선택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구각을 떨치고>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현실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잔류했고, 후에는 서울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남쪽으로 향하던 발길을 되돌려 전쟁 중의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철로>의 현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유의지로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된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든, 죄책감이든 또는 자유의지든 이들은 모두 평범한 일반 서울 시민이었다. 그러므로 양심과 도덕적, 지적 판단이 거세되고 오직 정치적 판단과 처세에 의해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는 피란의 현실은 무장한 전장의 전투보다 더 폭력적이고 비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잔류파의 갈등과 민중의 기회주의

서울로 돌아온 도강파에 의해 자행된 부역자 처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남은 자들끼리의 물고 물리는 치열한 다툼과 책임 전가뿐이었다. 그러므로 잔류파 사이에서는 조금의 상황적 우위라도 선점하기 위해 위계를 정하려는 긴박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물론 잔류파의 위계는 국가에서 이미 정한바 있다. 하지만 똑같은 부역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다른 이들은 자발적, 적극적 부역임을 증언하면서 부역자들끼리 서로를 증오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생존을 위해 양측에 모두 충성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횡포에 의해 잔류파의 고통은 더욱 극대화 된다.

‘잔류파의 갈등과 민중의 기회주의’에서 논의하는 작품의 공통점은 주인공들이 도강파는 물론 같은 잔류파들에게도 이용당하고 치이게 되는 사회적 약

www.kci.go.kr

자로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 손소희의 <결심>과 최정희의 <정적일순>은 여성과 노파, 강신재의 <포말>은 아내와 그 정부(情夫)에게 이용당하는 남편, 곽학송의 <철로>는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고 서툰 인물이다.

3.1. 잔류파의 갈등과 위계

손소희 <결심>의 주인공인 영희는 도강하지 못하고 잔류한다. 잔류한 상태에서 부역을 하지 않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지 않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부역을 하게 된다. 그런데 화가인 영희는 '쓰딸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리는 똑같은 부역행위를 했음에도 남성 화가들의 부역행위와 자신의 부역행위를 분리하고 그들의 행위를 타자화하여 비난하고 있다.

> 영희는 말없이 입을 비쭉하며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일찍이 애국투사가 되지 못한 그로서 대한민국에 충정을 다하지는 못했을망정 공산주의라고 하면 생리적으로 싫고 거슬리는 그였다. 이번에도 남편이 늑막염으로 앓고 누어 있지만 않았어도 영희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흘러가려고까지 결심했던 것이다.(손소희, <결심>, 104면.)

> 영희에게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자기의 선배요 또 모범이 될 만한 남성 화가들이 묵묵히 이 굴욕에 머리를 숙으리고 있는 것이 었다. 영희는 또 한번 "못살걸……"하던 정숙의 말이 생각 났다.
> "목숨을 유지 한다는 것은 저렇게도 굴욕이란 말인가?"
> 영희는 혼자 속으로 중얼 거렸다.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새삼스레 느꼈다.(위의 책, 105~106면.)

그녀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병으로 잔류했음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역설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증명하고 부역을 합리화하려 한다. 특히 그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굴욕에 머리를 숙인다며 단지 선배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원래 사상이 불순하여, 자발적으로 잔류하고 부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다. 똑같

www.kci.go.kr

은 부역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게 유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 위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에서는 내년이면 중학교를 나올 열여섯 소녀, 인임의 치열한 생존본능이 드러나고 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인임은 전쟁을 통해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빨갱이의 물건을 맡아두다 걸린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부역 죄를 취조하는 치안대에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다. 당시 부역자 심판이 부역의 여부, 경중과 상관없이 변명을 똑똑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태극기를 이동리에서 누구집보다도 제일 먼저 내어달은 원숙어머니다. 그암팡지고 요사스러운 솜씨에 치안대도 넘어갈지 모르고 치안대가 넘어가면 저의는 감쪽같이 빠지고 이편만 덮태기를 쓰고 나설지 모를것이다. 더구나 어수룩한 성실 어머니 내외가 새에 끼었고 성실이 자신은 끝까지 성실히 회사에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였으니 성실이네 세식구까지도 그 편을 들어주게 되면 까닭을 분명히 모르는 두 늙은이들만 변명도 똑똑히 못하고 잠시동안이라도 고생을 할것이 걱정이 되어 인임이는 따라나선 것이다.(염상섭, <해방의 아침>, 159면.)

> 이렇게 해서 인임네 네식구가 당장으로 풀려 나오게 된것이지마는, 나오는길에서 인임이 부친은 그래도 이웃간에 살던 원숙이 모녀가 가엾어서
> “애, 지금판에 위원장 총살일텐데 싸줄것까지는 없지 마는 그네들 위원장이었다는 말을 한 것은 네입으로 사형선고를 한거나 다름없지 않으냐?”
> 하고 말을 타일으니까, 인임이는 눈을 커닿게 뜨고 부친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 “온 별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럼 저의를 살려주구, 우리가 죽어두 좋을까요?”
> (위의 책, 164~165면.)

인임이 여맹 위원장이었던 원숙어머니를 고발하고, 청년단간부였던 오빠가 나타나면서 인임의 부모님은 부역의 혐의를 벗고 무사히 귀가하게 된다. 원숙어머니의 말솜씨에 속아 넘어갈 뻔한 어수룩한 치안대는 원숙어머니보다

www.kci.go.kr

한수 위인 인임의 고발로 그녀가 공장지부 여맹위원장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인임의 아버지는 자신들 대신 총살을 받게 될 원숙어머니에 대해 걱정하는 인간적 모습을 보이지만 이에 대한 인임의 당돌한 대답은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하는 잔류파들의 당시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영희와 그의 선배도 그리고 인임, 원숙 어머니, 성실이네도 모두 전쟁 전에는 이웃들이었고 평범한 서울 시민이었다. 그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전쟁 중 살아남기 위해 부역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추종하지 않았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들을 부역으로 내몬 것은 굶주림의 공포와 공산군의 총살 위협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역 책임은 국민들을 그러한 현실에 방치하고, 상황을 방조한 국가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역의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스스로가 영희처럼 자신의 처지를 읍소하고 다른 부역자와 자신의 차이를 찾아 강조하거나 인임처럼 자기보다 더 부역의 죄가 무거운 자를 스스로 찾아내서 고발하는 것뿐이다. 인천 상륙에서 서울 탈환까지 2주 동안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진짜 빨갱이, 부역자들은 모두 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자기 방어능력과 현실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녀자와 노인들만이 남아 서로 부역의 위계를 다투고 그 죄를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3.2. 민중의 기회주의와 전횡

최정희는 잔류파 작가로서 『적화삼삭 9인집』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 부역 문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내용은 잔류파로서 자신의 변명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부역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정적일순」의 시간적 배경은 1·4후퇴 직후로 2차 피란상황이다. 그러므로 마을사람은 모두 필사의 탈출을 하게 되고 노파만이 텅 빈 마을에 남게 된다. 주인공인 노파는 북과 남에 각각의 자식을 두었기에 남한의 자식은 피란 보냈지만, 언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르는 북의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 잔류를 선택한다. 이러한 노파에게 공산군이 찾아오고, 그들이 떠나자 이번에는 노파의 부역을 심판하겠다고 청년단이 찾아온다. 그런데 노파를 가장 괴롭히는 '동회 청년'은 공산군이 들어오면 공산

www.kci.go.kr

군의 앞잡이로 국군이 들어오면 청년단의 일원으로 온갖 전횡(專橫)을 일삼는 대표적 기회주의자이다. 도강을 못한 잔류파들 중에는 재빠르게 공산주의자로 변신한 이들이 많았다.

> 동회 청년이 알려준 것이라고 노파는 알고 있었다.
> "자네가 그럴 수가 어찌 있느냐. 자네는 공산당의 앞잡이가 아니었더냐? 큰아들네가 피난내려갔다는 것, 우리가 이북에서 월남했다는 것까지도 자네가 고해 바쳐서 날 괴롭히지 않았더냐?"
> 노파는 속으로 이런 말을 몇 십 번 되풀이하면서도 그냥 힐난을 당했다.(최정희, <정적일순>, 70~71면.)

이들은 북에서 내려온 공산주의자들과 달리 현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두려운 존재이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자신들의 전력을 숨기고 다시 한 번 변신하여 잔류파 심판에 앞장서면서 잔류파들을 더욱 잔인하게 몰아세우는 역할을 자청한다. 이들이 선택한 '피란'의 방법은 강을 건너 길을 떠나는 '도강'이 아니라 전선의 이동에 따라 양측에 충성하며 남아있는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기회주의'인 것이다.

Ⅱ장에서 논의한바 있는 곽학송 <철로>에서도 서울이 회복되자 전쟁 중 출근했던 현수를 부역 죄로 처벌하겠다고 그의 집으로 철도치안대가 찾아온다. 당시에는 부역자 처벌의 명목으로 각종 사설 치안 조직이 무분별하게 생겨났고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이 많았는데, 먼저 치안 조직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가면 당시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직을 만들어 처벌에 앞장 서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이력이 수상한 사람들도 많았다. 현수를 찾아온 철도치안대도 마찬가지로 그 중 한명은 인공기가 달린 장총을 메고 서울 해방을 외치면서 피난민의 한강 도강을 저지하던 공산당의 자위대원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와 같이 부역을 한 직장동료 순오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약삭빠르고 세상물정에 밝은 순오는 벌써 부역자에서 부역자 처벌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변신한 것이다. 전쟁 중의 세상은 그들과 같이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러한 면에서 현수는 한 없이 불리하다.

www.kci.go.kr

강신재 <포말>에서는 아내가 정부인 다른 사내를 숨기기 위해 남편을 의도적으로 부역으로 내모는 장면이 나온다.

> 六·二五때 사실 나는 조금 나쁜 짓을 하였다. 그것은 연옥이가 그렇게 안하면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이지만, 하여간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무진 고생이었다고 함이 옳을 게다. 나는 동 위원회의 심부름 같은 걸 하고 돌아다니면서 통문 따위를 돌리기도 하였지만 더 많이 뼛골이 빠지게 노동일을 하였다. 복구 사업이니 탄환 나르기에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갔다. 시커먼 수염을 기르고 아주 센 말씨를 쓰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싫었지만 그러지 않으면 사는 수가 없다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강신재, <포말>, 401면.)

아내와 정부 그리고 남편 이들 셋은 모두 잔류하지만 이들 중 동위원에서 목숨을 걸고 부역을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수룩한 남편뿐이다. 아내는 남편을 앞세워 부역을 하게 한 후 주위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정부를 집 안에 숨겨주고 있다. 결국 남편은 전쟁 중에는 아내의 정부를 위해 부역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전쟁 후에는 갖가지 정부의 동원과 형사의 취조에 시달리는 등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기회주의자들은 전쟁이라는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비인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잔류파의 갈등은 처벌에서 시작되는데 <결심>과 <해방의 아침>에서처럼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계를 정하고 상황적 우위를 선점하려 한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서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면서 상처를 덧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양측 모두에 충성을 다하는 기회주의자들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느 쪽에든 자신들의 충성과 사상적 순결을 인정받기위해 과도한 충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희생되는 자들이 <정적일순>, <포말>, <철로> 등의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전쟁에서 인간은 누구나 원초적인 자기보호본능에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통해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전쟁을 만나면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www.kci.go.kr

4. 한국전쟁기 잔류파의 문학적 증언과 그 의미

일제 강점기 때 피식민지의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암암리에 일본의 폭력성을 폭로해 낸 것처럼, 전쟁기 당시의 작가들도 암암리에 현실의 상황에 대한 부당함과 모순을 작품을 통해 표출해내고 있었다. 문학의 연구는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작가가 작품에 남긴 증거를 찾아내 그 의미를 해석해 내고, 규명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잔류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잔류를 결정했던 시민들의 선택 근거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며, 정부의 잘못된 발표였다.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이 져야했으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잔인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했고 도강파와 잔류파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도강파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당시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도식적 승리와는 다르게 해석될 장면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잔류파들이 겉으로는 반성하면서 느끼고 있었던 억울함, 도강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영웅화하면서도 느끼고 있던 죄책감은 은연중에 작품 곳곳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체험기, 수난기, 피란기, 종군기 등의 '증언물'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 않게 진행되어 왔지만 '창작물'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이에 비해 비교적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누락되었던 창작물을 바탕으로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더불어 잔류의 이유 그리고 책임 문제를 논의했다. 전쟁 승리의 기록은 지배층이 갖고 있다면 전쟁의 피해 기록은 기층민(基層民)들의 몫이다. 별다른 기록, 자료가 없어도 그들의 삶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인문학이 사회과학처럼 현세계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가는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이를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잔류파의 문학적 증언에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의 목소리를 통해 문학적 의무를 완성하고 그 의미를 규명해 내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강신재, 「포말」, 『한국전쟁문학전집』1, 신구문화사, 1969.

곽학송, 「철로」, 『한국소설문학대계』38, 두산동아, 1996.

염상섭, 「해방의 아침」, 『신천지』, 1951.1.

손소희, 「결심」, 『적화삼삭 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3.

최인욱, 「목숨」, 『최인욱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2.

최정희, 「정적일순」, 『한국전쟁문학전집』1, 신구문화사, 1969.

최태웅, 「구각을 떨치고」, 『전쟁과 소설』, 계몽출판사, 1951.

2. 논저

공임순, 「빨치산과 월남인 사이, '이승만'의 재현/대표성의 결여와 초과의 기표들」, 『상허학보』27, 2009.

김동춘, 『한국전쟁』, 돌베개, 2009.

김성칠, 『역사 앞에서』, 창비, 2009.

김재용·오오무라 마쓰오 편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역락, 2009.

문혜윤, 「1950~60년대 전쟁과 젠더-전후 신세대 작가 곽학송 다시 읽기」, 『우리어문연구』통권 44호, 2012.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9, 1990.

서동수, 「한국전쟁기 반공텍스트와 고백의 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20, 2006.

_____, 「모윤숙의 피난 체험과 도강파의 글쓰기」, 『한국문예비평연구』33, 2010.

_____, 「유진오의 글쓰기와 피난의 윤리성」, 『우리말글』52, 2011.

양주동 외, 『적화삼삭 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3.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 마티, 2012.

유진오 외,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11.

www.kci.go.kr

유진오, 『구름위의 만상』, 일조각, 1992.
이병순, 「한국전쟁기 여성문인들의 반공서사연구-모윤숙과 최정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1, 2010.
정희모, 「역사체험의 회복과 실감 있는 전쟁의 엿보기-곽학송의 <철로>」, 『민족문학사연구』8, 1995.
조미숙, 「손소희 초기 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26, 2006.
조영암, 「잔류한 부역문학인에게-보도연맹의 재판을 경고한다」, 『문예』, 1950.12.
한홍구,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한홍구 교수 역사와 책임」, 한겨레신문, 2014.5.25.

www.kci.go.kr

【국문초록】

한국전쟁에서 잔류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잔류를 결정했던 시민들의 선택 근거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며, 정부의 잘못된 발표였다. 그러나 그 당시,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했고 도강파와 잔류파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도강파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당시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도식적 승리와는 다르게 해석될 장면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전쟁 승리의 기록은 지배층이 갖고 있다면 전쟁의 피해 기록은 기층민들의 몫이다. 별다른 기록, 자료가 없어도 그들의 삶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그러므로 잔류파의 문학적 증언에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의 목소리를 통해 문학적 의무를 완성하고 그 의미를 규명해 내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잔류파, 도강파, 한국전쟁, 기회주의, 피란, 부역자, 위계, 증언물, 창작물

www.kci.go.kr

【Abstracts】

Perception of Reality and Literary Evidences by Janryupa

Kim Mi-hyang

To remain was to die in Korean War. Nevertheless, the trust on the nation and the wrong announcement released by government made people decide to remain in the dangerous region. But, at that time, nobody officially protested against the fact. Additionally, Dogangpa had to be cruel and violent to Janryupa for proving its evacuation to be right or proper choice, because ones who took the lead in punishing Janryupa was the people who had belonged to the Dogangpa which had decided to withdraw themselves, leaving many people in the battle fields. Therefore, it looks as if the confliction between them resulted in one-sided victory of Dogangpa. However, there are scenes that is possible to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make any different interpretations from the ostensible victory in the works of writers who was active at that time. They are important bases which can make us infer the situations at that time. While the record regarding a victory is allotment for ruling classes, a loss is for citizens. We can identify the fact in many literatures reflecting the essence of the age because they can sufficiently prove it with only their lives, without any records or data.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hat we pay attention to the

www.kci.go.kr

Janryupa's literacy evidences and interpret them, because it is to search for the historical truth through the voice of winners and losers as well as the dead and the living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only ask for the responsibilities for waging war, evading any responsibilities for the loss or damage due to the war.

Key words: Janryupa(People who remained), Dogangpa(People who cross the river), Korean War, opportunism, evacuation, communist collaboration, hierarchy, the testimony material, the creative written material

이 논문은 2015년 6월 2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